

패시브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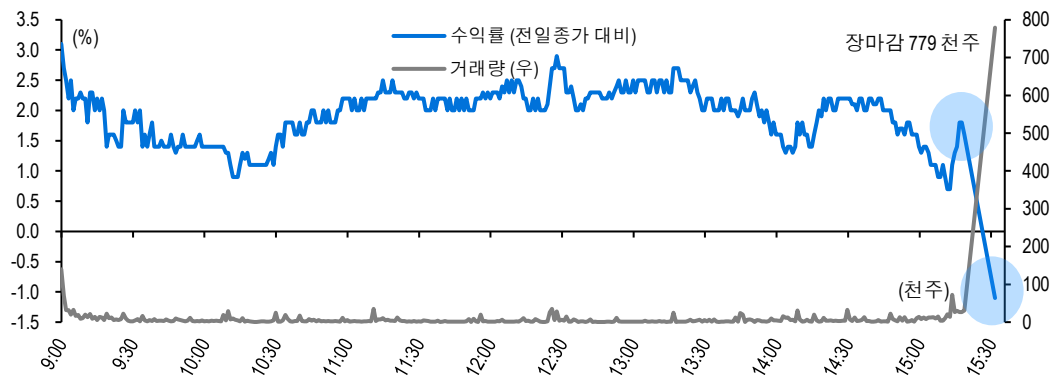
고경범

02 3770 3625
gyeongbeom.ko@yuantakorea.com

■ FTSE Korea 리밸런싱 -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 Cap 적용

- 금일 FTSE 리밸런싱일(3/20, 금) FTSE Korea ETF의 편입비중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지난 2/27(금)의 iShares MSCI Korea ETF(EWY)의 미국의 펀드 운용 규제 RIC 관련 삼성전자의 비중 조정과 유사.
- 미국의 RIC 규제에서는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 25% 초과가 불가하며, 5% 이상 종목의 합산 비중도 50% 이내로 제한. FTSE 지수에서는 Cap 적용 수준이 더 높아 삼성전자 비중은 22.8%→20.0%, SK하이닉스는 22.1%→20.0%
- 다만 한국 추종 ETF AUM에서 보면, 미국 상장 ETF(FLKR, Franklin FTSE South Korea, AUM 5.1억\$)보다 영국 상장 ETF(FLXK, Franklin FTSE Korea UCITS, 33.3억\$)의 AUM이 높아 영국/유럽 규정인 UCITS 규제 영향이 더 높을 것. 동 ETF와 연관된 UCITS 규정 적용 시, 삼성전자 비중은 32.4%→30.0%, SK하이닉스 비중은 18.9%→18.0%까지 감소 예상.
- 명목적인 ETF AUM의 리밸런싱 수요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다만, 작년 12월 FTSE 정기변경(12/19, 금)에서 SK하이닉스의 장마감 동시호가에 -4,372억원의 매도가 출회되며 급락. 당시 SK하이닉스의 비중 초과 분은 현재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나, 특히 유럽계 자금은 주식 스왑 계약 형태로 운용해 관련 장외파생계약의 청산 매물의 반영 영향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판단.
- 2/27(금) MSCI EWY ETF 리밸런싱 당시 삼성전자 비중 축소는 시장에 인지되어 장중 하락 이후 동시호가의 매수 수요가 비중 축소 반영분보다 우위였던 경험. 지난 25.12월 FTSE 정기변경과 유사한 장마감 동시호가 매도 분이 2종목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염두에 둘 필요.

[차트 1] 25.12월 FTSE 리밸런싱일 SK 하이닉스 주가



자료: KRX,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2] 25.12 월 FTSE 리밸런싱 당시, SK 하이닉스 장마감 매도 (단위: 억원, %)

구분	Code	종목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리밸런싱 수요	거래대금 대비	시가총액 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감소	A000660	SK 하이닉스	18,665	3,982,173	-4,372	-0.23	-0.11	-3.2	56.4

자료: FnGI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3] 26.3 월 -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FTSE ETF 비중축소 예상 (단위: 억원, %)

구분	Code	종목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리밸런싱 수요	거래대금 대비	시가총액 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감소	A005930	삼성전자	64,707	11,868,874	-9,736 (-1,391)	0.15	0.08	5.5	88.6
	A000660	SK 하이닉스	45,546	7,219,675	-4,162 (-595)	0.09	0.06	13.3	85.2

주: () 안 금액은 FTSE Korea ETF 추종자금 기준. 자료: FnGI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작성자: 고경범).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